

신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마녀 문구점

모모 글 노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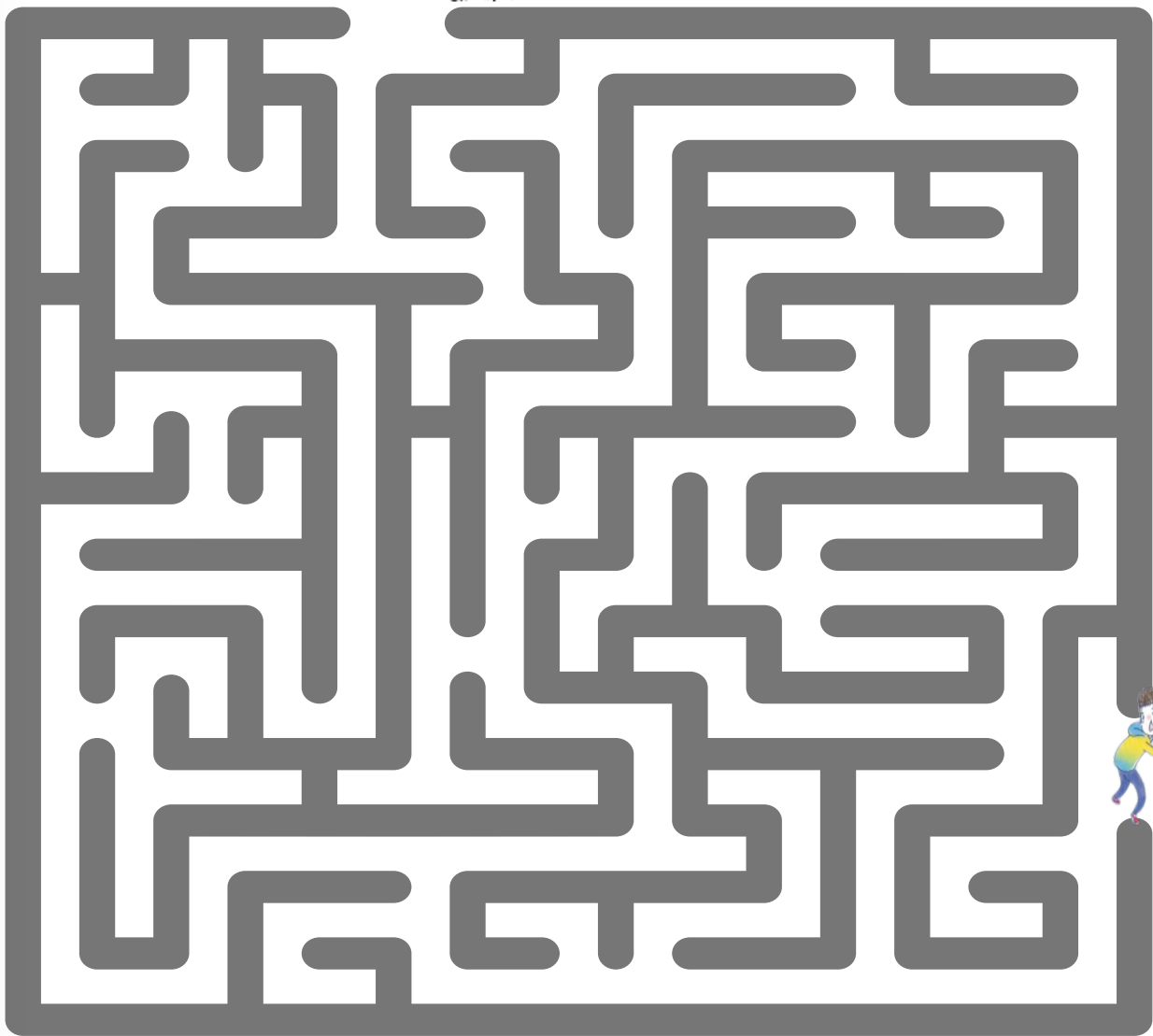
이름:

미로 찾기

1 멜랑도라가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START



2 빈칸을 채우며, 멜랑도라가 문구점을 팔고 싶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요.

“문을 닫고 싶지만,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니 이 방법밖에 없지.”

멜랑도라는 할머니가 신신당부하던 것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만들어야지.”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서 식혔다. 따듯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때 문구점 문이 열리면서 딸랑이 소리가 났다.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안으로 들어왔다.

멜랑도라가 잔을 내려놓고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

꼬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얼굴을 하더니, 슬금 슬금 뒷걸음질 치며 나갔다.

“성공! 역시 나는 똑똑해.”

꼬마가 도망치자 뿌듯했다. 멜랑도라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입술이 찻잔에 막 닿았을 때, 문구점 문이 또 열렸다.

“또 누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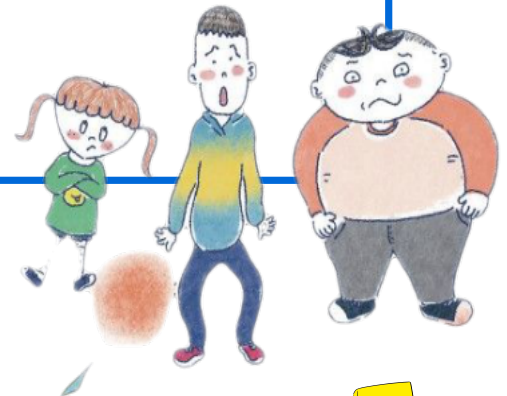
머리를 양 갈래로 묶은 녀석, 흘쭉한 녀석, 똥똥한 녀석 세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혹시 재들이 그 인가?’

할머니는 단골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가게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녀 문구점

마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멜랑도라가
문구점을
팔려고 하는 이유



3. 역할을 정하고, 역할극을 해보요.

등장 인물



멜랑도라 역

Blank pink oval shape with a dashed border for role assignment.



도리 역

Blank pink oval shape with a dashed border for role assignment.



레오 역

Blank pink oval shape with a dashed border for role assignment.



미니 역

Blank pink oval shape with a dashed border for role assignment.

역할극 하기(대본 1)

멜랑도라가 막 홍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문구점 문이 열리고 세 아이가 들어온다.



(잔을 내려 놓으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네? 양 갈래, 훌쭉이, 똥똥이.



(셋이 동시에) 우리도 이름이 있어요.



(손을 번쩍 들며) 나는 도리



(팔짱을 끼며) 나는 레오



(배를 두드리며) 나는 미니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명씩 손가락으로 집어 가며) 도, 레, 미! 너희 필요한 것 있으면 빨리 사서 가렴. 어제처럼 어질러 놓으면 (주먹을 쥐어 보이며)가만 안 뒤!



가만 안 두면, 마법이라도 부리실 건가요?



(눈을 크게 뜨며) 물론이지.



(셋이 동시에 배를 잡고 웃는다) 또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



(머리를 마구 헝크리며) 너희들 모두 가만 안 뒤!



(메롱하며 문으로 도망치듯 나간다) 거짓말쟁이래요. 아줌마는 거짓말쟁이래요,



(신발 한 짝을 벗어 문을 향해 던지며) 너희들 모두 가만 안 뒤!

셋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갔고, 닫힌 문에 신발이 부딪혀 탁 소리가 난다.

잠시 후, 아이들 셋은 다시 문구점 안으로 들어온다. 멜랑도라는 한숨을 내쉰다.



(멜랑도라에게 다가오며) 아줌마, 여기 팝잇 있어요?



(귀찮아하며) 팝잇? 그리고 아줌마 아니야.



팝잇 몰라요? 푸쉬팝 버블. 요즘 애들은 다 그것 가지고 놀아요.



(여전히 귀찮아하며) 그게 뭔데?



(답답한 듯 손가락으로 흥내내며) 뽁뽁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쉽게도 먹는 것은 아니예요. 애들이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배를 만지며) 저는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지만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꼬마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멋대로 다 하면서 말이야.
스트레스는 오히려 너희를 상대해야 하는 (자신을 가리키며) 나같은 어른.



(멜랑도라의 말을 끊으며) 아이, 답답해.(가방을 뒤져 팝잇을 꺼내며) 이런 거요.
여기는 안 팔아요? 이게 없으면 애들이 당연히 안 오죠.
이렇게 허접한 물건만 가득 있으니 새로 생긴 대형 문구점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화난 목소리로) 뭐, 허접해? 우리 문구점을 네가 걱정할 바는 아니다만,
(코를 씹씩 거리며) 당연히 있지. 잠깐 기다려 봐.

멜랑도라는 진열대 뒤쪽으로 가서, 마법 지팡이를 주머니에서 꺼 들고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더 알록달록하고, 더 다양한 모양의 팝잇,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하트, 개뼈다귀,
닭, 우주선, 무지개, 수박, 딸기, 바퀴벌레, 똥 모양! 가지가지 팝잇아, 쏟아져라!

진열대 뒤에서 끝도 없이 팝잇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들 셋은 놀라 도망친다.



(입꼬리를 올리며) 고작 두번 째 마법으로 아이들을 다 내쫓다니.
사냥이 시시하게 끝난 느낌인데. 하하하.(문구점 안에 웃음소리가 울린다.)

4 마나를 찾아 떠난 멜랑도라가 세 정령을 만났어요. 겪은 일을 요약해 보세요.

땅의 정령-노움



물의 정령-운디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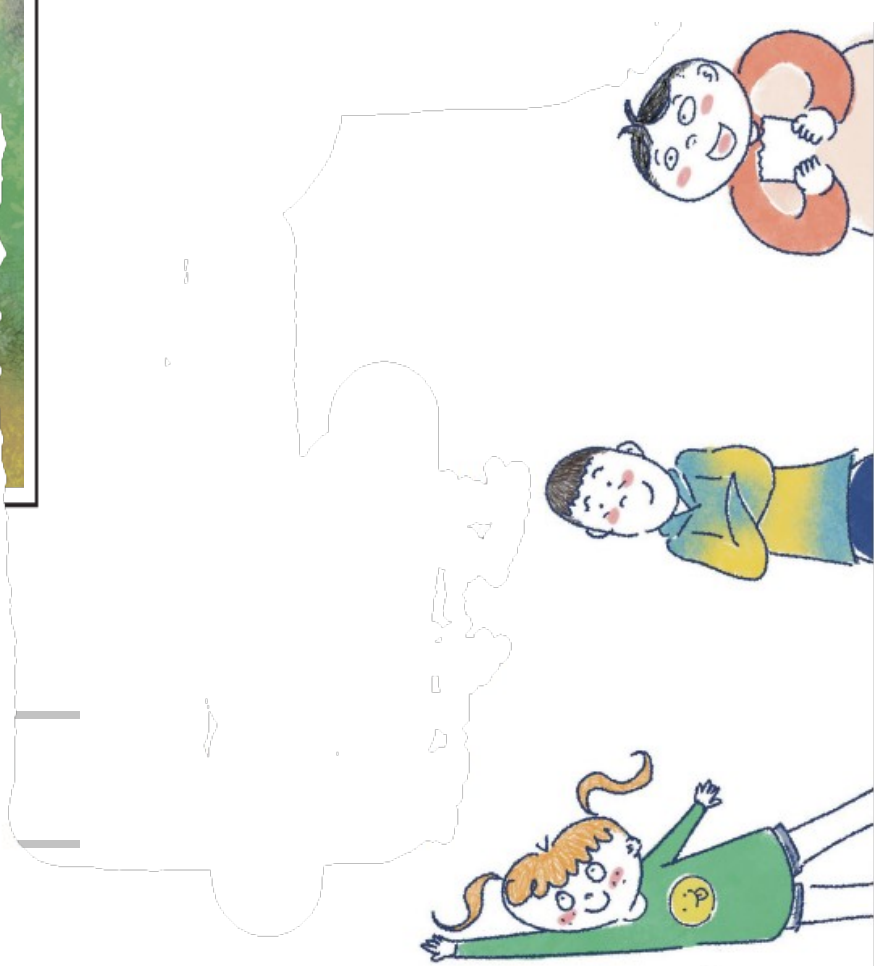
어떤 일이 있었나요?

4 마나를 찾아 떠난 멜랑도라가 세 정령을 만났어요. 겪은 일을 요약해 보세요.

바람의 정령_실프



어떤 일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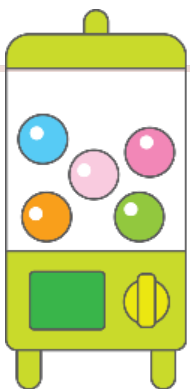


마녀 문구점

단골손님

문구점 꾸미기

- 5 멜랑도라는 이제 문구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멜랑도라를 도와 문구점을 꾸며주세요.
(문구점에서 팔고 싶은 물건을 올려서, 진열해 보세요.)



5 멜랑도라는 이제 문구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멜랑도라를 도와 문구점을 꾸며주세요.
(문구점에서 팔고 싶은 물건을 오려서, 진열해 보세요.)





친구들을 만나 이 책에서 재밌었던 점을 인터뷰해요.

